



"시아버지 죽으라고 축수했더니 동지선달 맨발 벗고 물 길을 때 생각난다"

뜻: 평소에 밉거나 귀찮게 느껴졌던 사람이나 물건도, 막상 없어지고 나면 그 소중함을 깨닫고 아쉬워하게 된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후회 · 부재 · 소중함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시	아	버	지	↓	죽	으	라	고											
축	수	했	더	니	↓	동	지	선	달	↓	맨	발							
벗	고	↓	물	↓	길	을	↓	때	↓	생	각	난	다						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시	아	버	지	↓	죽	으	라	고											
축	수	했	더	니	↓	동	지	선	달	↓	맨	발							
벗	고	↓	물	↓	길	을	↓	때	↓	생	각	난	다			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시아버지] [죽으라고] [축수했더니] [동지선달] [맨발 벗고] [물 길을] [때] [생각난다]

웹에서 보기

